

이동주 KIMHANSOL

이동주는 런던예술대학교 London College of Fashion에서 Bespoke Tailoring을 전공하였으며, Savile Row에서 3년간 수련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을 기반으로 패션 브랜드 KIMHANSOL의 Technical Director로 활동하며, 테일러링과 드레이핑을 통해 강인함과 불완전함이 공존하는 현대적 실루엣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켓의 내부 구조 — 심지, 봉제선, 부자재 — 를 의도적으로 외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체주의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옷의 겉면 너머에는 수많은 공정과 기술, 그리고 선택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그 감춰진 내부를 가시화함으로써, 옷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하나의 구조물임을 제안합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미감으로 삼아, 보는 이로 하여금 옷을 만드는 손길과 그 이면의 이야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